

김영건 “신혼 아내에 ‘올림픽 금’ 선물하려 했는데 ...”

패럴림픽 광주시청 간판 선수
개인전 아쉬운 은메달
단체전에서 꼭 금메달 따겠다

대한민국 장애인 탁구의 간판 김영건(37·광주시청)이 아내에게 금메달을 선물하려는 목표를 다음으로 미뤘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김영건(37·광주시청·세계랭킹 2위)이 아쉽게도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 국가 대표 20년, 다섯 번째 출전한 도쿄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겠다는 계획도 무산됐다.

김영건은 30일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남자단식(스프츠등급 TT4) 결승에서 압둘라 외즈튀르크(터키·세계랭킹 1위)에게 세트스코어 1-3(11-9, 6-11, 7-11, 10-12)으로 역전패했다. 김영건은 이날 라이벌 압둘라 외즈튀르크의 상습세를 꺾지 못했다. 김영건은 지금까지 모두 14차례 압둘라 외즈튀르크와 격돌, 상대전적 8승6패로 앞선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물오른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압둘라 외즈튀르크에게 털미를 잡혔다.

20년간 대표팀에서 뛰어난 김영건은 중학교 1학년이던 1997년 적수염으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후 광주 장애인복지관에서 탁구를 접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탁구 선수의 길을 걸으며 장애인 탁구 대표팀의 '터줏대감'이 됐다. 처음 패럴림픽에 나선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 탁구 개인 단식과 단체전 2관왕에 오른 그는 런던 대회에서 개인 단식 금메달, 단체전 은메달을 추가했고, 리우 대회에서도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영건은 장애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으나 점검고시를 거쳐 광주 보건의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기도 했다.

김영건은 올해 1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신혼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패럴림픽을 위해 아내와 떨어져 합숙 훈련을 했다.

그는 도쿄로 출발하기 전 “믿어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어서 금메달을 따고 아내에게 돌아와겠다”고 다짐했었다.

김영건이 아내에게 금메달을 안겨줄 기회는 남아 있다. 31일 오후 6시 남자 단체전 8강에서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대회 2연패 사냥에 나선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영건이 30일 도쿄 메트로폴리탄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남자 탁구 개인 결승전에서 터키 압둘라 외즈튀르크의 공을 되받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K리그2 전남드래곤즈, 김천과 아쉬운 무승부

K리그2 전남드래곤즈가 김천상무와의 '창과 방패' 싸움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전남은 지난 29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2021 27라운드 김천과의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후권이 1골 1도움의 활약을 했지만 승리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16분 이후권이 '0'의 균형을 깼다.

페널티박스 우측에서 공을 잡은 이후권이 상대 수비수를 제친 뒤 왼발 슈팅으로 골대 왼쪽을 뚫으면서 득점을 만들었다. 이후권은 전반 34분에는 도

움도 올렸다. 박스 안에 있던 발로텔리가 이후권의 크로스를 트래핑 이후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전남은 2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후반 15분 코너킥 상황에서 박찬용의 자책골이 나왔고 후반 추가 시간에 김천 조규성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K리그2 최소실점(20실점) 전남과 최다득점(39득점) 김천의 '창과 방패'의 싸움은 2-2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크로스가 그대로 결승골로”

프리미어리그 200번째 경기
왓퍼드전 1-0 승리 이끌어
토트넘 3연승 리그 선두 전인

손흥민(29·토트넘)이 자신의 통산 200번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2021-2022시즌 2호 골을 기록, 팀의 개막 3연승과 선두 도약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29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왓퍼드와의 2021-2022 EPL 3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 전반 42분 오른발 프리킥으로 경기의 유일한 골을 터뜨렸다.

16일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EPL 1라운드 결승 골에 이어 이번 시즌 손흥민의 2호 골이다.

손흥민은 시즌 마수걸이 득점포 이후 울버햄프턴과의 리그 2라운드, 파수스 페헤이라(포르투갈)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쉬어갔던 득점포에 다시 불을 붙였다.

특히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2015-2016시즌 EPL에 진입한 뒤 통산 200번째 경기에 출전한 이날 축포를 쏘아 올렸다.

EPL에서 아시아 선수가 200경기에 출전한 건 손흥민이 처음이다.

손흥민은 왓퍼드와의 10차례 EPL 맞대결에서 6골을 넣어 '천적' 면모도 보였다.

통계 전문 유폴타에 따르면 왓퍼드는 손흥민이 리그에서 사우스햄프턴(9골)에 이어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상대 팀이다.

아울러 유폴타는 이 골로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이후 직접 프리킥으로는 첫 골을 넣었다고도 전했다.

또한 손흥민은 최근 기록한 4골 중 3골을 페널티지역 바깥에서 터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운 토트넘은 맨시티, 울버햄프턴전에 이어 1-0 승리를 거두며 이번 시즌 3라운드까지 EPL 팀 중 유일한 3연승을 수확, 선두(승점 9)로 나섰다.

/연합뉴스



손흥민(토트넘)이 29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왓퍼드와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한 달에 30경기 '악몽의 9월' 시작됐다

T 타이거즈 전망대
‘코로나 사태’ 88경기만 소화
앞으로 남은 일정 ‘빠듯’
돌발변수에 마운드 변칙 운영
베테랑 타자들 활력 절실

‘악몽의 9월’이 시작된다.

올 시즌 KIA 타이거즈는 코로나19의 최대 희생양이다.

7월 상순에 국면에서는 NC·두산발 ‘코로나 사태’로 기세를 잊지 못하고 일찍 전반기를 마감해야 했고, 후반기에는 퓨처스 선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선수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상황 속 KIA는 9월 강행군을 앞두고 있다. KIA는 29일까지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88경기만 소화했다.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삼성·키움·한화(96경기)보다 8경기를 덜 치렀다. 그만큼 더 빠른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9월 시작부터 더블헤더다.

1일 두산과의 원정경기 이후 12일 NC전, 15일 롯데전 다시 29일 NC전을 더블헤더로 치른다. 4차례의 더블헤더 포함 KIA는 9월에만 30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9월부터 엔트리가 확대되지만 상대적으로 따지면 KIA가 가장 불리하다.

최근 KIA 퓨처스 선수단에서 두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선수단 대부분이 자가격리 상태다. 예방접종을 맞은 5명이 있지만 군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비역, 부상에서 회복한 재활 등 경기 감각이 떨어진 선수들이다.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야 할 시기에 퓨처스리그 경기도 중단되면서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선수들로 전력을 강화하게 된 상대들을 생각하면 KIA는 오히려 전력이 더 약해지게 된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이어졌던 KIA의 홈런포도

잡잡해졌다. KIA는 지난 13일 후반기 첫 원정 경기로 진행됐던 SSG와의 3연전에서 5개의 홈런포를 날리면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2연전으로 치러졌던 SSG 원정에서는 2패만 기록했다.

두 경기에서 홈런은 커녕 단 7개의 안타만 생산하는 데 그쳤고, 반대로 피홈런은 무려 8개를 기록했다. 특히 최주환은 두 경기에서 3홈런을 날리면서 여전히 ‘천적 본능’을 과시했다.

이닝이 아쉬운 선발, 격차가 큰 불펜, 집중력 떨어지는 타선 그리고 새 외국인 투수 보 다카하시의 가세도 아직 멀었다.

지난주 5경기를 치르면서 KIA는 7.95로 가장 높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팀타율은 0.240으로 뒤에서 3위였다. 뜨거운 마운드, 차가운 방망이였다.

베테랑과 베테랑의 역할이 중요하다. 위기를 넘고 나면 또 다른 위기가 윌리엄스 감독에게 찾아오고 있다.

올 시즌 돌발 변수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마운드에서도 변칙 운영이 눈에 띈다.

김유신이 불펜과 선발을 오간 끝에 부상으로 이탈했고, 현재도 선발전에 빈틈이 생기면서 불펜진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확고한 선발진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마운드를 운영해야 한다.

마운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베테랑 타자들의 활력도 절실하다.

역시 최형우가 키를 쥐고 있다. 망막 이상 증세에서 벗어난 최형우는 후반기 14경기에서 타율 0.314, 2홈런 12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최형우는 29일 SSG와의 원정경기에서는 최연소 개인 통산 3500루타 주인공이 됐다.

최형우에 앞서 3500루타를 넘어선 타자는 이승엽(4077), 양준혁(3879), 박용택(3672), 김태균(3557) 등 4명뿐이다.

그의 기록 도전은 계속된다. 두 차례 더 담장을 넘기면 최형우는 KBO리그 통산 7번째 14년 연속 10홈런 주인공이 된다.

한편 김선빈은 5년 연속 100안타(80번째) 기록에 4개를 남겨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